

관광 자원 확대·인구 유입 장려...강진군 내년 '밀그림'

강진만 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푸소' 참여 농가 확대 귀촌인 지원 강화·스마트팜 단지 조성...군민 삶 개선 최우선

강진군은 내년 강진만 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힘쓰고, 숙박형 체험 '푸소' 참여 농가를 늘릴 계획이다.

강진군은 최근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주재한 보고회에서는 2024년 강진원 운영 방향과 효율적인 예산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강진군은 관광 정책 부문에서 강진살이 체험 '푸소'를 정비하고 신규 참여 농가를 유치할 방침이다.

월출산 권역 관광지를 조성하고 생태탐방 기반 시설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이 밖에도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국가정원 지정' '가우도 야간경관 구축' 등을 내걸었다.

인구 정책 분야에서는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강화, 빈집 정비·새 단장 사업, 신규 주택 조성, 비대면(사이버) 인구 유입, 청년마을 운영 등을 추진하며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농정 분야에서는 강진 쌀 판매·쌀귀리 특구 활성화와 논콩 등 벼 대체작물 재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임대형 첨단농장(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고 '온라인 초록민음'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가 소득을 높인다.

해양·산림 분야에서는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을 확대하고 마량 놀토수산물시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토하 활성화 특산단지를 조성하고 황토만발 건

강 숲길을 조성하는 등 강진만·월출산 생태환경을 심분 활용한다.

축산·환경 분야에서는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1등급 브랜드화'와 '조사료 생산·유통 지원'을 추진한다.

혁신소 육가공 업체를 지원하고 사료공장 시설을 지원하는 등 축산업 다양화도 꾀한다.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도 펼친다.

강진군은 보고회에서 부서별 군정 현안 사업과 내년도 신규 시책 등을 보고했다. 사업별 추진율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4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했지만, 군민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정책을 구상하고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매우 만족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원(가운데) 강진군수가 군수실에서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열고 내년 사업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나주 농·수산물, 미국 한인 식탁 오른다

시, LA 농수산물 엑스포 참여 대형 유통업체와 68억 수출 협약 오늘까지 5개주서 판촉 행사도

나주시가 미국 한인 시장에 68억원 규모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맺었다.

나주시는 운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미국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엑스포에 참여하고, 미국 대형 유통업체와 수출 협약을 맺는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운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미 농식품 수출에 나섰다.

올해는 미국 최대 아시아 슈퍼마켓 H마트와 500만달러(약 68억원) 규모 나주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맺었다.

1982년 설립한 H마트는 미국 뉴저지주 린드우드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 10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연 매출은 23억 달러(3조1000억원)에 달한다.

운 시장과 최우진 H마트 사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수출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심화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미주지역본부장과 나주 동강면 출신인 정승주 H마트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운병태(왼쪽 네번째) 나주시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68억원 규모 나주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H마트와 나주시는 19일까지 뉴저지 리지필드점과 뉴욕 제리코점 등 미국 5개 주 11개 점포 나주산 농·수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운 시장은 11~12일 이틀간 미국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엑스포에서 나주지역 참여업체 5곳과 지역 농특산물을 알렸다.

지난해 나주 농특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한 한남체인 플라튼점과 전남도 해외 상설판매장(키트레이딩)을 찾아 농특산물 수출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u@kwangju.co.kr

운 시장은 "지난해 한남체인에 이어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H마트와 수출 협약 성과를 통해 우리 지역 농특산물 해외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며 "내년도부터 수출 물류비 지원 전면 폐지로 수출 농가·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가운데 앞으로는 맞춤형 수출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 딸기 농가에 수정용 꿀벌 공급

군, 딸기·양봉 단체와 협의 시중 절반가에 공급 '윈윈'

장성군이 지역 시설 딸기 농가에 수정용 꿀벌을 공급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이달 10일 지역 딸기·양봉 대표 단체와 협의를 열고 '수정용 꿀벌' 공급을 위한 협의 내용을 조율했다.

수정용으로 딸기 농가에 보급할 꿀벌은 장성지역 양봉 농가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장성에서는 234개의 딸기 농가가 91ha 규모 농사를 짓고 있다.

딸기 농가는 진원면과 남면, 황룡면 등 주로 장성 남부권에 분포해있다.

장성군은 딸기 농가에 수정용 꿀벌이 시중 가격의 절반(50%)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시설 딸기 농가에 수정용 꿀벌을 공급한다. <장성군 제공>

이번 꿀벌 공급을 통해 1억5000만원 상당 꿀벌 750군(통)도 판로를 얻었다.

장성군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꿀벌 공급 농가 수요조사를 받고, 이달 초까지 시설 딸기 재배 농가의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다.

오는 23일부터 11월10일까지 3주에 걸쳐 수정용 꿀벌을 딸기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꿀벌 공급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61-390-8431)로 하면 된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9월 딸기 모종을 적당한 시기에 옮겨 심을 수 있도록 '꽃눈 분화 검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현장 중심 사업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축제관광재단 초대 임원 공모

내년 상반기 출범 관광·문화예술 진흥 기구...30일까지 접수

장흥군이 30일까지 재단법인 장흥축제관광재단 초대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장흥축제관광재단 비상임 이사 6명, 비상임 감사 1명 등 총 7명이다. 임원 임기는 2년이다.

장흥축제관광재단은 지역 축제 관광사업과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다.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다.

비상임 이사는 축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을 뽑을 예정이다.

비상임 감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는 무보수로 활동한다. 연임 여부는 추후 정관에서 정한다.

임원 지원은 이달 30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장흥군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061-860-5771)을 찾거나 등기 우편·전자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장흥군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거쳐 임원 후보자를 뽑아 군수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최종 책임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장흥군은 장흥축제관광재단 임원 공개 모집을 시작으로 정관·내부 규정 정립, 창립총회 개최, 재단설립 등기, 직원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김용호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눈과 입이 즐겁다 '화순 고인돌 축제'

20~29일 개최...미술 기획전 다채·적벽 한우 할인 행사도

화순군이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20~29일)를 맞아 관광객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화순읍 동구리·월요일 휴관)은 기획전 '상상유희'를 오는 12월24일까지 선보인다.

전시에는 김광우, 김호민, 유용상 작가의 회화 작품 54점을 만날 수 있다.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도암면·월요일 휴관)은 이달 29일까지 소장 작품전 '빛의 감각'을 진행한다.

빛과 색상이 주는 안정감과 위로를 평면 회화 작품 42점에서 느낄 수 있다.

하나움 문화스포츠센터 갤러리에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오지호 미술 공모전 시상식·전시회'가 열린다.

48개교 수상자 274명의 135점이 전시된다. 이곳에서는 2023년 국제 수목 비엔날레 기념·37회 화순 예술인 협회 회원전도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29명의 작품 62점을 감상할 수 있다.

화순지역 사립미술관 3곳도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연다.

다산 미술관(사평면·다산리, 일·월요일 휴관)은 이달 말까지 '다산, 가을 여행'을 주제로 한 소장 작품전을 연다.

소소 미술관(도곡면·월요일 휴관)은 '2023 아름다운 곳'을 주제로 신선운 작가 기획 초대전을 다음달 4일까지 연다. 이 전시에서는 작가가 꿈꾸

는 환상의 세계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태곳 미술관(화순읍 내평리, 일·월요일 휴관)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한국미술협회 화순지부 회원작품전'을 연다.

전시에는 한국미술협회 화순지부 회원 26명이 참여했다. 회화, 서예, 사진, 조각 등 다양한 분야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화순을 찾는 관광객의 입을 즐겁게 할 행사도 마련된다.

20일부터 21일까지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장 세계석테마파크 향토 음식점에서는 '화순 적벽 한우' 소비 촉진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화순 적벽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화순군지부와 화순축산협회등조합이 각각 주최·주관한다.

이곳을 찾으면 화순 적벽한우를 무료로 시식하고 최대 36% 할인한 가격에 살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안심과 등심, 채끝, 살치살 등을 판매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한우 불고기·국거리를 사은품으로 준다.

구매한 고기를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공동취식 공간도 마련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가을의 정취와 휴식을 선사할 것"이라며 "축제와 더불어 풍성한 전시들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기후위기 대응' 임업·정원 활성화



이병노(오른쪽) 담양군수와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이 지난 17일 '임업·정원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과 협약

국립한국정원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담양군이 임업·정원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담양군은 지난 17일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과 임업·정원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담양군은 지난 2020년 국립한국정원문화원 건립 사업을 유지했다.

담양군은 대나무를 필두로 하는 산림 자원과 죽녹원, 소쇄원 등의 다양한 정원자원이 있다.

두 기관은 기후변화 시기 탄소중립과 산림자원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임업·정원 분야 발전에 함

께 힘쓰기로 했다. 협약에는 ▲우수 임산물 생산·유통 위한 정보 교류 ▲경쟁력 있는 임산물·산림 자원 육성 ▲산림기술 교육 훈련 지원 ▲산림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 설립됐다. 산림·정원 분야 최고경영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숲지도사·임업 경영인 등 1800여 명의 산림 정원 분야 전문가를 배출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이 국립한국정원문화원 건립과 더불어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담양군이 원림 문화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 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